

2011년 8월, 샤미나드의 해
제안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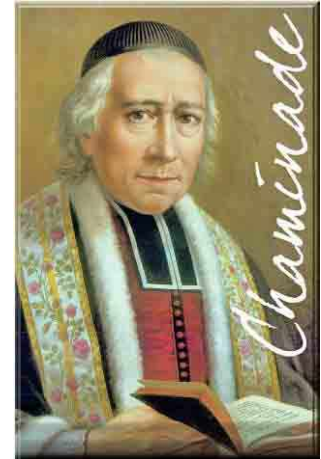
믿음을 통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참조.골로 2,7)

8월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혹은 월중 행사 안에서

- 세계청년대회(8월16일-21일)
- 성모승천 대축일(15일)
- 복자 야곱 캡 신부 기념일(13일)

기도를 위한 자료들

- 하느님 말씀
- 창립자의 글
- 복자 야곱 캡 신부의 증언



세계 젊은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골로 2,7)**”이며, 이번 8월의 기도는 그리스도론적인 면이 두드러질 것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반석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시다. (세계 청년 대회에 관한 글에서)
- 성모승천은 믿음의 여인인 마리아의 모든 삶의 근원이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총을 계시해준다.(샤미나드신부의 성모승천에 관한 글에서)
- 복자 야곱 캡 신부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총을 당신 삶 안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분의 편지 안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복자 캡 신부의 옥중 편지참고)

기도의 구성

아래에 제안한 주제로 기도를 해도 좋고, 혹은 어떤 행사나 기념할만한 축일에 기도를 해도 좋다.

기도의 분위기

기도실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가를 부른다. 성경, 십자가, 복자 샤미나드 신부와 복자 야곱 캡 신부의 초상화를 적당한 자리에 놓고 여러 개의 초를 켜서 장식한다.

기도를 위한 성서 구절

-민음을 통해 그 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

콜로 2,1-9 에페 2,17-22

-복자 야곱 캅 신부 : 콜로 2,20-3,4

-성모승천 : 필리 2,5-11

기도 제안

기도(1회분)

1. 시작성가
2. 하느님 말씀 : 콜로 2,1-9 (잠깐 침묵 혹은 짧은 강론)
3. 샬미나드 신부의 마리아에 관한 글.
4. 하느님 말씀과 창립자의 말씀을 들은 후 묵상나눔, 청원기도, 감사기도.
5. Jung 신부에게 쓴 복자 야곱 캅 신부의 편지.
마리아께 대한 봉헌기도
샬미나드의 해 기도
6. 살베 레지나

이 기도의 지향은 세계청년대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그리스도가 더욱 더 우리 삶의 반석이 되도록 세계청년대회의 모든 참석자들이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기 위함이다.

(Pablo Rambaud 신부, SM-필리핀)

기도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

복자 야곱 캅 신부의(S.M.) 마지막 편지들

(캅 신부의 순교일-1943년 8월 13일)

그분의 가족들에게 :



나의 사랑하는 사촌들, 특히 Seppl, 그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편지가 여러분 손에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9일 프랑스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나

를 베를린으로 데리고 갔으며, 예수 성심 대축일인 7월2일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저의 사형집행일입니다. 오늘 오후 7시가 되면 저는 저의 사랑하는 구원자, 제가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지만, 그 고통의 시간 안에서도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굳건히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이를 기억 할 것 입니다..... 저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났던 흑독한 투쟁이 끝난 지금, 제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오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Seppl !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있고 단지 하늘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마리아,요셉의 손에 여러분 모두를 맡기며.

JAKOB

*Seppl 은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사촌중의 한 사람.

Jung 신부님에게(마리아회 총대리 신부)



“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당신께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성심 대축일인 7월 2일에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사형이 집행될 것 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해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원을 갱신하고, 또 사랑스런 하늘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두 손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을 함으로써 제가 마리아회 회원으로 살았던 것을 지금 이 순간 더욱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힘들게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단지 하늘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1920년8월13일 저는 수련기를 시작했고 그 기간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했던 시

간이었습시다. 그리고, 오늘(1943년8월13일), 저는 다시 영원한 행복의 삶이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만나 뵙길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샤미나드 신부의 마리아에 관한 글

교회사의 모든 시기는 투쟁과, 존엄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리아와 뱀 사이에 적의를 두신 이래 마리아는 세속과 지옥을 끊임없이 정복하셨습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모든 이단을 소멸하셨고 그들을 점차 죽음의 침묵으로 쇠퇴시키셨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유행하는 큰 이단은 종교적 무관심입니다. 종교적 무관심은 자만의 혼수로 영혼을 마비시키고 영혼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힘을 잃고 쇠약해지게 합니다.(...) 무감각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정의의 태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신앙의 빛은 점차로 희미해지고, 크리스천 세계에서 그 빛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고된 것, 즉 일반적인 태만과 배교가 참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막 목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관한 정확한 묘사도 우리를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권능은 감소되지 않았습시다. 마리아는 모든 이단을 정복하셨듯이 현대의 이단도 정복하시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시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전과 같이 오늘도 비길 데 없으신 여인이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려 버리기로 약속된 여인이시기 때문입니다.(...)마리아에게 현대의 위대한 승리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승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멸망으로부터 신앙을 구제하는 영광일 것입니다. (피정지도자들에게 쓴 편지 1839.8.24)